

# 大進韓國型 윤전등사기 D-815

## 事務機械와 함께 16年 WIPO賞도 受賞



姜 泰 旭

〈大進機械工業社 代表〉

- … 자신의 發明을 商品化하여 中小企業…○
- …의 基盤을 닦은 發明家 企業人이 있다. …○
- … 「大進韓國型 윤전등사기 D-815」製…○
- … 造業體인 大進機械工業社 姜泰旭사장…○
- …(43)이 화제의 주인공. 姜사장은 74년…○
- …2月 우리나라 最初로 윤전등사기 國產…○
- …化 開發에 착수, 우리나라 實情에 가장…○
- …알맞는 自動잉크供給 및 自動종이給紙…○
- …式 윤전등사기 開發에 成功하여 實用新…○
- …案 第16316號 등 모두 6件의 工業所有…○
- …權을 획득했다. ………………○
- … '83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世界知…○
- …的所有權機構(WIPO)賞을 受賞하기도…○
- …한 이 윤전등사기는 현재 정부조달청에…○
- …저장품으로 選定되어 전국 국공립 단체…○
- …에 보급되고 있다. ………………○
- …編輯者 註 ……○

### 成功은 信用과 끈기의 結晶

한 마디로 오늘의 成功은 信用과 끈기의 結晶이었다. 또 信用하나만을 믿고 部品生產을 도와주신 선배와, 끈기를 믿고 技術的으로 도와준 후배 그리고 아내의 눈물겨운 内助도 成功의 原動力이었다.

정치외교학을 專攻, 機械와는 거리가 먼 필자가 事務機械인 등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

난 62年. 美7보병사단에 족업하여 美軍들에게 手工藝를 지도하면서 부터이다.

科學文明의 혜택을 最大한으로 누리는 美軍들 속에서 필자는 事務機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각종 資料를 구입하여 탐독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68년 복사기 製造 販賣업체인 S企業에 스카웃되었고, 복사기 生產分野와 販賣分野에서 각각 2年씩 일할 수 있었다.

S기업에서 生產과 販賣業務를 맡힌 필자는 72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내 會社를 갖게 되었다.

韓國電子복사기株式會社. 主要業務는 L 產業 生產 電子복사기 全國 總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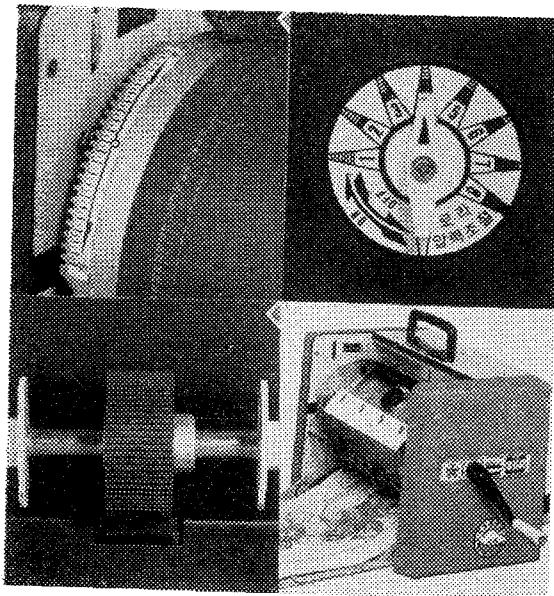
그러나 會社는 3年이 채 못되어 門을 닫아야 했다. 製品의 品質이 좋지 않아 판로가 좁아지고 끝내는 全財產을 날리고 삭월세방 신세가 되고 말았다.

### 國內技術만으로 開發

「일어서자. 지금 쓸어지면 나의 인생은 끝장이다.」

전자복사기에서 윤전등사기로 전환한 이유는 간단했다.

우선 같은 事務機械라는데 자신이 생겼고, 당시만해도 전자복사기 製造技術은 外國에 의존하는데 비해 윤전등사기는 國內技術만으로도 外國



〈주요 부품과 완제품〉

을 능가하는 製品 開發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海外進出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당시 등사기가 극히 始原의인 것을 보고 필자는 機械化가 시급함을 피부로 느끼고 서둘러 研究에 착수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았다.

事業 失敗로 研究費는 커녕 생계조차 잊기 어려웠다. 당시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끈기가 있기도 정평이 나있는 필자로서도 좌절하고 끝내는 포기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필자를 자신처럼 아껴주는 선배는 필자의 信用하나만 담보로 하고 돈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으나 등사기開發만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國內에는 필자가 구상하는 윤전등사기 製造會社가 2개나 있었으나 성능이 좋지않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배의 승락은 1년만에야 떨어졌다. 필자의 끈질긴 설득에 선배는 研究에 필요한 부품생산은 자신의 공장에서 해줄테니 技術開發을 서둘러라는 것이었다.

## 우리 나라 實情에 맞는 윤전등사기

처음에는 外國製品 모방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外國製品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윤전등사기는 紙가 잘 되어야하는데 外國製品은 外國처럼 質 좋은 종이만을 使用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생지등 質이 비교적 좋지 않은 종이는 紙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여기서 우리나라 實情에 맞으면서도 外製보다 좋은 製品 開發을 決心했다.

필자가 여기서 구상한 윤전식 등사기는 첫째, 紙種에 관계없이 紙가 잘 되고 둘째, 電氣가 없어도 가능하고 셋째, 타자원지를 비롯 어떤 원지도 使用이 가능하고 넷째, 엽서 크기에서 8 절크기까지 등사가 가능하고 다섯째, 구조가 복잡치 않아 고장이 없고 여섯째, 크기·무게(13 kg)가 적어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고 일곱째, 전문기술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여덟째 어떤 잉크를 使用해도 1회 주입으로 1만매 이상 선명한 등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정치외교학을 專攻, 機械設計圖 등의 作成에未熟한 필자는 H大 工大를 졸업한 후배를 찾았다. 나의 끈기를 믿은 후배는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선뜻 필자와 함께 일하겠다며 따라 나섰다.

## 77年 會社設立…官納도 順調

필자의 研究는 친구 사무실 구석에서 진행되었지만 화려한 研究室보다도 活氣가 넘쳤다. 필자가 구상한 아이디어는 후배에 의해 圖面에 옮겨지고, 圖面의 내용은 선배에 의해 機械(등사기)가 되어 나오니 더 바랄 것이 없었다.

77년 5월 드디어 大進機械工業社가 탄생하였다. 손으로 잉크를 供給하던 것을 실린더에 뚫은 2천6백여 個의 구멍을 통해 잉크가 自動으로 고르게 흐르고, 가압조절롤러를 설치해 용지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장수만큼만 흘러내도록 하는 등 필자가 구상했던 内容 그대로의 조건을 갖춘 등사기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萬人の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 등사기의 一部品인 인쇄면 위치조절 장치가 지난 78년 實用新案 第16316號로 登錄되는 등 모두 6件의 工業所有權이 登錄되었다.

品質의 優秀性은 육군·서울시청·조달청 납품이 立證해주고 있다.

또한 82년 9월 韓國發明特許協會가 주관한 83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는 大企業의 각종 發明品과 겨루 당당히 WIPO 賞을 受賞하여 그 優秀性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직접 外國나가 市場개척할 計劃

내년 판매는 7천대를 計劃하고 있다. 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오늘도 염심히 뛰고 있다.

내년에는 또 필자가 직접 外國에 나가 市場을  
開拓할 計劃도 마련해 놓고 있다. 금년의 경우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등 동남아를 비롯 미주  
등지로 5만불 상당의 수출을 해 바 있다.

필자의 바램은 政府에서 零細發明人을 위해  
資金支援도 중요하지만 販路開拓 提供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윤전등사기는 각급  
학교, 그것도 인쇄시설이 뒤떨어진 산간벽지가  
가장 큰 판로이다. 지방교육구청등에서 보다 쌍  
값으로 일괄 구입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

의 간절한 바램이다.

發明企業人の 자세

發明企業은 기준 기업과는 다른一面이 있어야 한다. 당국의 지원요청에 앞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당국의 지원도 뒤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부터 터득해야 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그동안 수만대의 제품이 팔려나갔지만 단 한  
것의 고장수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만약 고장이 발생하면 산간벽지의 경우 왕복 우송료를 본사부담으로 전액 무료 수리해줄 계획이다.

또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發明企業人으로서의 자세를 훌트리지 않았다. 지난해 조세의 날 모범납세자로 재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이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

◆(案) 英文工業所有權法令集 發刊 案內 (內)◆

本會에서는 1981年 5月에 이미 英文工業所有權法令集을 發刊한 바 있으나 그간 審查請求制度와 出願公開制度의 採擇 및 特許協力條約(PCT) 加入등으로 인하여 대폭적으  
로 法令이 改正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빌어 用語를 좀더 정선하고 現行法令에 부합되도록 改正 補完하는 한편 特許法등 工業所有權基本法外에도 施行令까지 追加하여 다음과 같이 改正 英文工業所有權法令集을 發刊하였 하오니 所要部數量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製作方法 : 4·6倍版 紙質 : 모조
  - 面 數 : 162面
  - 價 格 : 4,000원
  - 問 議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部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電話 : 557-1077/8